



특별인터뷰

포천 포도와인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원종현

“올 추석 선물은 포천산 포도와인으로 하세요”

최첨단 설비 포천산 꿀 포도 주원료 포도와인 생산



“아리양 와인은 천혜의 자연 조건에서 친환경 농법으로 자란 포천산 꿀 포도를 주원료로 하여 한국인에게 맞는 와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좋은 술을 빚는 장인 정신의 고집으로 고객의 가치를 먼저 생각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고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고객 여러분과 함께 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리양 와인은 최첨단 설비로 보다 안전하고 좋은 술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포천시 가산면 우곡2리 468번

지에 세워진 포천 포도와인 영농조합법인 원종현 대표이사는 지난해부터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포도를 주원료로 하여 포도와인을 생산해 농협, 인삼조합, 택배 등의 방법으로 전국에 판매하고 있다.

공장신축과정에서 설계잘못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마음고생도 많았지만 8억원의 자부담을 들여 준공 후 포도를 있는 그대로 판매하는 것보다는 조금 나은 정도로 이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법원에서 생산하고 있는 포도와인은 세 종류가 있다. ▶아리양 750mm 1개들이 지관셋트 (ARIAN grapes wine Gift set, 750mlX1Bottle)▶아리양 750mm 2개들이 셋트(ARIAN grapes wine Gift set, 750mlX2 Bottle)▶아리양 375mm 4개들이 셋트(ARIAN grapes wine Gift set, 375mlX4Bottle) 등이다.

아리양(ARIAN)은 한국을 대표하는 타령인 아리랑과 와인을 만드는 사람이란 뜻의 AN(양)이 합쳐져서 한국적이면서도 와인의 맛을 느낄 수 있는 합성어이다.

원 대표이사는 지난해 아리양을 맛본 사람들은 모두 맛이 좋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한다. 1개들이는 1만7천원, 2개들이는 3만4천원, 4개들이는 3만3천원에

판매했다고 한다. 올해는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그 선에서 판매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원 대표이사는 포천에서 생산되는 포도는 당도가 높다고 한다. 당도가 높은 이유는 자갈밭으로 물 빠짐이 좋고 공기가 좋으며 햇빛이 강해 당도가 매우 높다고 한다. 이 당도 높은 포도 1kg을 원료로 하여 포도와인 1병 정도가 생산된다고 한다.

연간 4만병 정도 생산이 가능한 법인은 지하 10m에 포도와인을 보관하고 있다. 그곳은 한여름에도 15~16도 정도 된다. 물은 광천수를 사용해서 와인 맛을 내도록 했다.

원 대표이사는 80년 처음으로 가산에서 포도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현재는 6천여명여 포도농사를 짓고 있으며 와인공장을 운영해 보다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외국에서 들여온 값싼 와인보다는 이번 추석에는 가격이 차이 가 있더라도 가산에서 생산된 포도를 원료로 하여 생산하는 아리양을 선물하는 것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원 대표이사는 최근 포천포도연합법정으로 취임했다. 포천에서 생산되는 모든 포도를 한 곳에 모아 집단 출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동일 브

랜드로 포도를 출시할 계획이 있다.

이처럼 공동선별해서 출하되면 고품질로 인식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인은 앞으로 수출계획도 세우고 있다. 일본에서 사업하는 분이 한 번 찾아와 공장을 둘러보고 맛을 보고 돌아갔다. 친환경 무농약으로 재배한 포도를 원료로 생산하여 포도와인 아리양을 전 세계에 수출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원 대표이사는 와인과 건강에 대해 “레드 와인에 들어 있는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은 심장의 모세혈관을 보호하고 뇌와 심장의 세로소상을 방지하며, 해로운 콜레스테롤의 생성을 억제하고 피부암과 유방암의 발병률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는 발표도 있다. “와인을 즐기는 프랑스인들은 다른 유럽 사람들에 비해 심장병이 적다고 하며 고대 중세에는 와인이 치료약으로 쓰였다는 것도 많이 알려진 이야기”라고 밝혔다.

포천에서 생산되는 포도와인의 맛이 전국에 알려지고 국민들의 건강에도 좋은 와인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문의: 포천 포도와인 영농조합법인(031-541-9090)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탐방 우리지역 사업소 139 이피에스산업

진공성형·게도바시·브리스타·가설방음벽 전문



대표 고한중

“주어진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곧 행복이다”를 좌우명으로 20여 년 간 외길 인생을 고집해 온 고한중 대표가 혼신을 다해 운영해온 이피에스산업(포천시 군내면 용정리 237-3 대표 고한중)을 찾았다.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클린사업장으로 지정되어 직원들의 안전과 쾌적한 작업 환경을 자랑하고 있는 이피에스산업은 가산면 정교리에서 지난 7월에 현 소재지로 이전에 완벽한 생산라인을 갖추고 고객에게 한치의 하차도 없는 제품을 생산에 공급하고 있다.

주요 사업부로는 각종 식품포장용기, 전자부품트레이, 문구 및 팬시용품소재, 키보드용 덮개 등을 생산하는 진공사업부와 건축자재인 가설방음벽, 신개념 건축내·외장재 및 펠스 자재인 에버우드(Ever Wood)와 뱀바월드(Bamboo World) 등을 생산하는 건축자재사업부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디자인, 고객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제품 생산으로 언제나 고객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더 나은 제품 개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으로 고품질의 제품을 낮은 가격으로 고객들에게 제공하며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좀 더 다양한 고객 층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이피에스산업은 현재 생산품목 전량을 OEM 생산으로 고객이나 협력업체로부터 완벽한 품질, 정확한 납기를 인정받고 있다.

또한 고객의 제품을 보다 안전하면서 다기능의 제품포장을 위해 단순 생산 납품이 아닌 디자인 및 기능 면에서 한층 높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고객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달려가 고객의 기적에 남는 업체가 되길 지향하고 있다.

고 대표는 “고객의 제품을 한층 더 완벽하고 안전하게 포장하기 위해 모든 연구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언제나 고객 필요하면 달려가 적절한 상담과 연구 개발하는 자세로 고객의 요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고품질의 제품을 낮은 단가로 고객들에게 제공 재해에 방화동을 정착시키기 위한 안전교육 실시

경영학을 전공한 고 대표는 서울의 모 업체에 입사해 경리직, 영업직, 생산관리직을 두루 거치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주위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왔다.

일에 대한 열정이 남다른 고 대표는 특출한 것으로부터 실용신안등록, 외장등록, 디자인등록 등 많은 분야에서 등록증을 획득하고 끊임없는 제품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이피에스산업은 플라스틱포장재 및 건축자재를 생산하며 그동안 쌓아온 성형기술의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이 인정하는 제품만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고 대표는 안전을 중요시하며 화재로부터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청결을 생활화할 것을 수시로 직원들에게 주문하고 있다. 또한 직원들이 현장에서 작업하는 도중에 안전을 확보하고 자율적인 산재예방활동을 정착시키기 위한 주기적인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이피에스산업에서는 플라스틱포장재 및 건축자재를 취급하는 대리점을 모집할 계획이며 이는 곧 제품의 신뢰성 및 자사의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문의)031-543-2422 HP: 011-796-4811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각종 식품포장용기의 문구 및 팬시용품소재, 가설방음벽, 신개념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이피에스산업은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이 인정하는 제품생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행복한 보험이야기 6

“언젠가 출장을 떠나기 위해 이른 새벽 아이에게 아침밥도 챙겨주지 못한 채 서둘러 집을 나선 적이 있었다. 전날 먹다 남은 밥이 조금은 남아 있었기에 계란찜만 얼른 데워 놓고 잠이 덜 깬 아이에게 대충 설명을 한 뒤 출장으로 내려갔다. 전화로 아이와 간단한 인사를 나눈 뒤 피곤한 몸에 저녁밥 걱정은 뒤로한 채 방으로 들어와 양복을 벗어 던지고 침대 위에 몸을 던졌다. 그 순간 “푹”소리를 내며 빨간 양념국물과 라면가래가 침대보와 이불에 퍼지는 게 아닌가! 물 부은 컵 라면이 이불 속에 있었던 것이다. 도대체 이 녀석...”

나는 웃음을 들고 달려가 장난감을 갖고 놀던 아이의 등과 엉덩이를 마구 때렸다.

“왜 아빠를 속상하게 해! 이불은 누가 빨라고 장난을 쳐 장난을?”

화가 난 나는 때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 때 아이의 울음 섞인 몇 마디가 나의 매든

손을 멈추게 했다. 아이의 얘기로는 밥 솥에 있던 밥은 아침에 먹었고, 점심은 유치원에서 먹었는데 저녁때가 되어도 아빠가 오시지 않아, 싱크대 서랍에 있던 컵 라면을 찾아 끓여 먹었다는 것이다. 가스렌지를 만지면 안 된다는 아빠의 말이 생각나서 보일러 온도를 ‘목욕’으로 누른 후 데워진 물로 라면을 끓여 하나는 자기가 먹고 하나는 이불 속에 넣어 두었다는 것이다. 내가 먹을 라면이 식지 않게 하려고... 아들은 친구에게 빌린 장난감 때문에 내게 얘기하는 걸 겁박 받았으며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다. 아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것이 싫어 화장실로 뛰어 들어간 나는 수돗물을 크게 틀어 놓고 평평 울었다. 한참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나와서 우는 아이를 달래 약을 발라주고 잠을 재웠다. 라면국물에 더러워진 녀석의 손에는 엄마의 사진이 있었다. 나는 그 저 오랫동안 문에 머리를 박고서 있었다.”

아내의 빈자리

아내를 먼저 보내고 어린아이를 키우며 힘든 상황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한 가정의 이야기이다. 한 집안의 가장이 경제적으로 자기 자신도 어찌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다시 말하면 가장 혹은 아내가 죽거나 다치거나 병들거나 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남은 가족들만큼은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바로 종신보험인 것이다. 물론 물질이 그 빈자리를 대신 할 수 없다. 든든하고 자상한 아내의 자리, 늘 푸근하고 다정한 엄마의 자리를 물질이 채워 줄 수 없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는다면 그 불행의 늪을 수용하기 매우 힘들 것은 자명한 일이다. 나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어떠한 해결책을 마련해 두었는가!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은 무엇일까? 혹은 본인 보험을 가입하면 자신을 위해 드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보험은 나보다 가족에 대한 선물인

것이다. 내가 병원에 입원치료 받을 때 누가 병원비를 마련해야 하는가! 나 아닌 다른 가족이 마련해야 한다. 만만치 않은 병원비라면 누가 곤란을 겪겠는가!

“시간의 걸음에는 세 가지가 있다. 미래는 주저하면서 다가오고, 현재는 화살처럼 날아가고, 과거는 영원히 정지하고 있다.”

보험은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건강에 이상신호가 없을 때 가입해야 하는 것! 점점 보험 가입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있기에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의 행복을 위하여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가는 하루 하루가 되기를...



이미정 금호생명 경인지역본부 포천지점 매니저 010-3023-0065

사제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어차피 신고해야 할 것이라면 10% 세액공제라도 받게 예정신고를 하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양도한 사람은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고인 제출대상 서류>

- ▶당해 자산의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 이 경우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사용하는 인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 ▶환지확정 전에 취득한 토지
- ▶환지예정지증명원, 잠정등급확인원 등
- ▶자본적 지출액·양도비용 증빙, 감가상각비 명세서 <공무원 확인대상 서류> : 민원

자료제공 : 의정부세무서 세원관리과 870-4484-4487/4502-4507

인 제출생략

-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 다만, 양도소득세 계산시 폐쇄등기부 등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인이 폐쇄등기부 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본
- ▶개발공시지가 확인원
- ▶예정신고시 해택 예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내야 할 세액의 10%를 공제해 준다.

또한 1년에 1회만 부동산을 양도하였거나 2회 이상 양도하였더라도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하여 세액도 공제 받고 세금에 대한 부담감에서도 빨리 벗어나도록 하자.

산업안전사고 예방

해체 중이던 조적벽체 도괴

▶재해발생 개요

2007년3월10일(토) 12시30분경 00공장 내 화장실 리모델링 현장에서 철거 협력업체의 하도급 소속 보통인 부인 피재자(50세·남)가 동료 작업자와 함께 공장 내 화장실 벽체를 핸드브레이크를 이용하여 해체하던 중, 벽체가 피재자 방향으로 갑자기 전도되면서 덮쳐 피재자 사망, 동료작업자 부상.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해체 건물의 조사

- 사업주는 해체 작업시 건물의 도면속지 등을 통하여 건물구조, 주변 상황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함.
- 나. 해체 작업 계획서 작성
- 사업주는 해체 작업시 해체건물의 붕괴 또는 전도 등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물 조사 결과에 따른 해체계획을 아래 내



용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이 진행되도록 관리 감독 철저히.

- 해체의 방법 및 해체순서 도면
- *해체는 상부에서 하부로 순차적으로 해체하여야 하고, 불의의 전도를 위한 조치로서 버팀대 등을 설치하여야 함.
- 가설설비·방호설비·환기설비 및 살수·방화설비 등의 방법
- 사업장내 연락방법
- 해체물의 처분계획/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등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지도원(031-826-6091)

국민연금 Q&A

불가능...우선순위가 상위인 사업장가입자로 바뀌야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아닐 경우만 가능

국민연금에 취직하고도 지역가입자로 남을 수 있나?

지역가입자는 우선 순위가 정해져 있다.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순이다. 따라서 본인이 원하더라도 지역가입자로 남을 수는 없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 외국기관(당연 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및 외국인은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돼야 한다.

2003년 7월1일 전까지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한해서 가입하도록 했다. 따라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지역가입자로 남을 수 있었다. 그러나 2003년 7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범위가 확대돼 지역가입자로 가입했던 사람도 사업장가입자로 납부하게 됐다. 약사, 변호사 등 지역가입자였던 전문직종 종사자 및 법인사업장 근로자들이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됐다.

2004년 7월부터는 2003년 7월 1일 당시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 적용됐으며, 2006년 1월부터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사업장 가입 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지역가입자는 어떤 경우에 가입되는 걸까. 일반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배우자와 27세 미만으로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전혀 없는 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하는 경우, 이미 1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도 사업장 가입으로 가입토록 했다. 즉, 매달 일종의 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가 아닌 사업장가입자로 신청하는 게 맞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관리공단 포천시지사 031-544-8700